

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여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며,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Weekly Strategy & Economy

국내 경기부양책 강화될 듯

2013. 5. 13



투자전략팀  
Strategist/Economist 마주욱  
02) 3787-5025  
majuok@kiwoom.com  
Economist/Strategist 전지원  
02) 3787-5231  
jiwon@kiwoom.com

키움증권 

CREDIT 

## Contents



1. 주간 증시: 국내 경기부양책 강화될 듯	3
2. 국내외 주요 이슈: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4
3. 주간 경제 전망: G2 경기개선 가능성 증가	5
4. 외환시장 동향 및 전망: 달러화 강세	7
5. 수급동향: 뱅가드 부담 감소와 글로벌 자금	9
6. Earnings & Valuation: 상대적 매력	10
7. 해외 증시 동향	11
Chart & Table	13

## 국내 경기부양책 강화될 듯

## &gt;&gt;&gt; 국내 주식시장 반등 예상

이번 주 국내 주식시장(KOSPI)은 반등할 것으로 예상 (1,930~1,980pt). 엔화 약세에 대한 우려가 과도했다는 판단. 일본의 금융완화 정책에 따른 일방적인 엔화 약세 구간은 지나고 있기 때문. 이에 더해 한국은행의 금리인하는 정부의 경기부양책 효과를 증가시킬 것. 동시에 엔화 약세에 따른 정부 대응이 그 만큼 강화됐음을 의미.

정부는 수출보다는 내수위주의 성장 정책을 강화할 수밖에 없을 것. 추경예산의 조기집행이 가시화될 경우, 국내 주식시장의 추세적인 상승을 기대. 이에 더해 뱅가드 벤치마크 변경에 따른 외국인 매도 압력이 완화되는 시점, 즉 하반기 국내 주식시장의 추세적인 상승 가능성은 여전히 높아 보임.

## &gt;&gt;&gt; 국내유동성 하반기 증가세로 전환될 듯

정책적인 환경과 더불어 화폐유통속도의 흐름에도 관심을 기울일 시점으로 판단. 국내 화폐유통속도는 1986년 이후 역사적 저점수준에 위치. 다만 2012년 3/4분기 0.174배에서 4/4분기 0.175배로 추가적인 하락세가 진정됨. 이는 금융완화정책이 재개될 경우, 향후 국내 유동성 환경이 개선될 것임을 시사.

## &gt;&gt;&gt; 일드갭은 금융위기 수준을 상회

MSCI KOREA 12개월 Fwd EPS는 직전 주 대비 1.13% 상향 조정되었지만, 이는 IT 섹터의 대폭적인 실적전망 상향조정(3.5%)에 기인한 결과. 하지만 현재 주식시장은 실적전망의 개선보다는 높아진 밸류에이션 수준에 주목할 시점으로 판단. 현재 MSCI KOREA 12개월 Fwd PER은 8.0배 수준. 특히 채권시장 대비 주식시장의 상대적 매력은 금융위기 수준을 상회하고 있음. 국고채 3년물 금리가 2.6% 수준까지 하락하면서, 일드 갭은 9.9%pt로 상승한 상황.

# 1. 주간 증시: 국내 경기부양책 강화될 듯

## >>> 국내증시, 반등 예상

이번 주 국내 주식시장(KOSPI)은 반등이 예상된다(1,930~1,980pt). 엔화 약세에 대한 우려가 과도했다는 판단이다. 일본의 금융완화 정책에 따른 일방적인 엔화 약세 구간은 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한국은행의 금리인하는 정부의 경기부양책 효과를 증가시킬 것이다. 동시에 엔화 약세에 따른 정부의 대응이 그 만큼 강화됐음을 의미한다.

엔화 약세는 추가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그러나, 100엔 부근에서 상당기간 동안 등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엔화 약세는 달러화 강세에 따른 것이다. 미국의 고용지표 호조에 따라 미국의 일시적인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크게 완화됐기 때문이다. 엔화 약세에 따른 국내 수출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는 필연적이겠지만, 그 정도는 시장의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이다.

글로벌 주식시장 상승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의 주식시장은 글로벌 주식시장과 '디커플링'되고 있다. 글로벌 위험거래가 증가하고 있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외국인 매도가 진행되고 있다. 이는 과거와 다른 모습이다. 이런 양상이 나타나는 가장 큰 원인은 선진국의 경기개선이 신흥공업국의 수출로 이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기 영향으로 주요 선진국의 경기부양책은 자산가격 상승에 맞춰져 있다. 자산가격 상승이 가계 및 금융기관의 대차대조표를 개선시킨 이후 소비나 투자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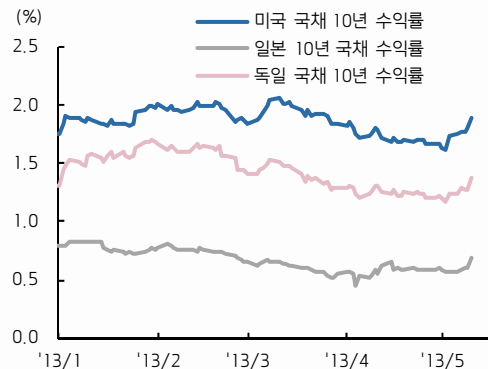
결국, 국내 역시 수출보다는 내수위주의 성장 정책을 강화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추경예산의 조기집행이 가시화될 경우 국내 주식시장의 추세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더해 뱅가드 벤치마크 변경에 따른 외국인 매도 압력이 완화되는 시점, 즉 하반기 국내 주식시장의 추세적인 상승 가능성은 여전히 높아 보인다. 주식시장 내에서도 위험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은행 및 소재, 산업재 업종의 일시적인 상승이 이를 시사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간간히 이어질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경기반등과 유로 경기회복 등에 대한 기대가 높아져야만 추세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이다. 이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달러화 및 엔/달러 환율 추이



자료: Datastream

일본, 미국, 독일 국채금리 추이(2013년 1월 1일 이후)



자료: Datastream



## 2. 국내외 주요 이슈: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 >>> 국내 유동성 하반기 증가세로 전환될 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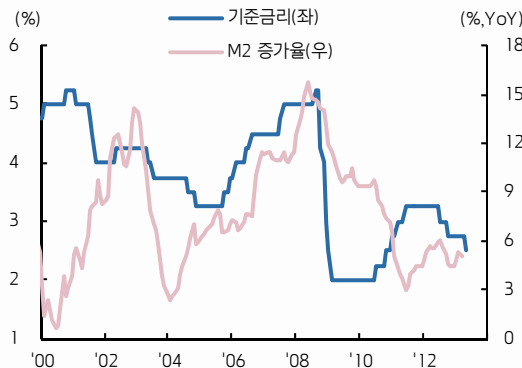
지난 주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25bp의 기준금리 인하가 단행되었다.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유동성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내 유동성 환경은 추세적인 전환에 성공하지 못했다. 미국의 경우에는 M2 증가율이 2010년 6월을 저점으로 반등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국내 M2 증가율은 2010년 7월 금통위가 금리 인상을 시작하면서 하락세가 가속화되었다. 당시 금통위의 금리 인상 사이클은 2011년 7월까지 지속되었다. 당시 금리인상은 빠르게 상승하는 물가를 억제하기 위함이었지만, 원화 약세를 유도한 정부정책으로 물가의 상승압력이 제어되지 못하자, 긴축을 가속화해 국내 경기 회복세가 미약한 상황에서 내수 경기를 위축시켰다는 판단이다.

전통적으로 금리정책은 경제의 미세조정을 위한 것이다. 통화 증가율과 기준금리가 동일한 궤적을 띠게 되는데, 당시 이러한 전통적 흐름이 붕괴되었다는 점은 과도한 긴축의 영향을 시사한다. 즉 원화 약세의 영향으로 불가피하게 진행된 과도한 긴축의 부작용을 완화시켜야 필요성이 높아진 시점이었다.

한편 대외적인 부분을 제외할 경우, 재정지출의 효과가 강화되려면 소비와 투자에 기여하는 승수효과가 높아져야 할 것이다. 부동산 시장 안정 및 부채부담 감소에 따른 가계 대차대조표의 개선, 투자 활성화 및 이에 따른 고용시장 개선은 이에 Key Factor이고, 신정부의 정책은 여기에 맞춰져 있다. 이러한 부분의 개선을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유동성 증가가 필요하다. 신정부는 금리인하 및 유동성 공급을 병행하는 Policy Mix를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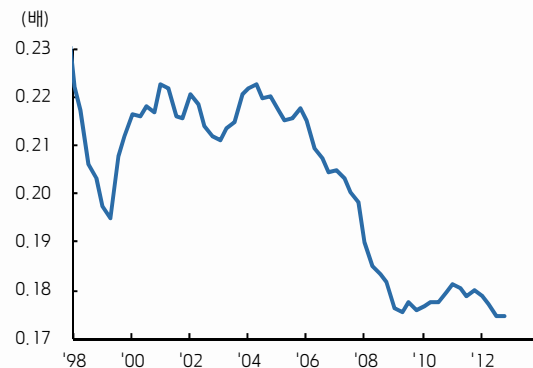
정책적인 환경과 더불어 화폐유통속도의 흐름에도 관심을 기울일 시점으로 판단된다. 국내 화폐유통속도는 1986년 이후 역사적 저점수준에 위치하고 있다. 다만 2012년 3/4분기 0.174배에서 4/4분기 0.175배로 추가적인 하락세가 진정되었다. 이는 금융완화정책이 재개될 경우, 향후 국내 유동성 환경이 개선될 것임을 시사한다.

기준금리 vs M2 증가율



자료: 한국은행

화폐유통속도 추이



자료: 한국은행

### 3. 주간 경제 전망: G2 경기개선 가능성 증가

#### >>> 국내 경제

##### 4월 실업률(SA), 3.2% 예상

4월 실업률은 전월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이 가시화되고 있지만, 실제적인 고용개선에는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정부의 투자활성화 및 추경편성 등을 감안할 때 하반기 중 실제적인 고용개선이 느리게 나타날 전망이다.

#### >>> 미국 경제

##### 예상보다 견실한 경제지표

주택 및 고용지표의 개선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소득세 인상 및 연방정부 지출축소 등에 따른 경기둔화 폭이 제한되고 있다. 경기선행지수 및 소비자신뢰지수 등이 하락했지만, 최근 반등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경기가 일시적인 둔화 이후 반등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 >>> 중국 경제

##### 4월 경제지표 개선될 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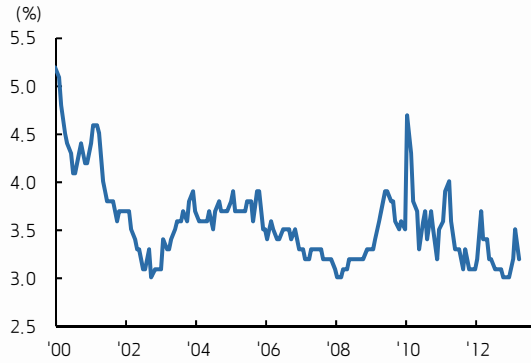
3월 일시적으로 둔화됐던 투자 및 생산 지표가 4월 중 개선될 전망이다. 전인대에서의 긴축정책 우려는 완화됐고, 정부의 재확대 정책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경기개선 등의 영향으로 수출입 역시 다소나마 회복되고 있다.

이번 주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5. 13 ~ 5. 17)

날짜	국가	경제지표	대상	중요도	전망치	이전치
5월 13일	미국	소매판매(MoM,SA)	4월	A	-0.3%	-0.4%
	중국	산업생산(YoY)	4월	B	9.4%	8.9%
		소매판매(YoY)	4월	B	12.8%	12.6%
		신규위안대출	4월	B	755.0B	1060.0B
		통화공급 M2(YoY)	4월	B	15.5%	15.7%
	유럽	유로존 재무장관회의				
5월 14일	미국	수입물가지수(YoY)	4월	C	NA	-2.7%
	유럽	유로존 산업생산(YoY)	3월	B	-2.0%	-3.1%
5월 15일	한국	실업률(SA)	4월	C	3.2%	3.2%
	미국	산업생산(MoM,SA)	4월	B	-0.1%	0.4%
		MBA 모기지 신청지수(WoW,SA)	5월 2주	B	NA	7.0%
	유럽	유로존 GDP(YoY)	1Q A	B	-0.9%	-0.9%
5월 16일	미국	소비자물가(MoM,SA)	4월	B	-0.2%	-0.2%
		주택착공건수(SAAR)	4월	B	980K	1036K
		건축허가건수(SAAR)	4월	B	940K	907K
		필라델피아 연준 제조업 지수(SA)	5월	A	2.5	1.3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WoW,SA)	5월 2주	B	330K	323K
	중국	실질 FDI(YoY)	4월	B	6.2%	5.7%
	유럽	유로존 소비자물가(YoY)	4월 F	B	1.2%	1.2%
5월 17일	미국	경기선행지수(MoM)	4월	B	0.2%	-0.1%
		미시건대 소비자신뢰지수	5월 P	B	77.7	7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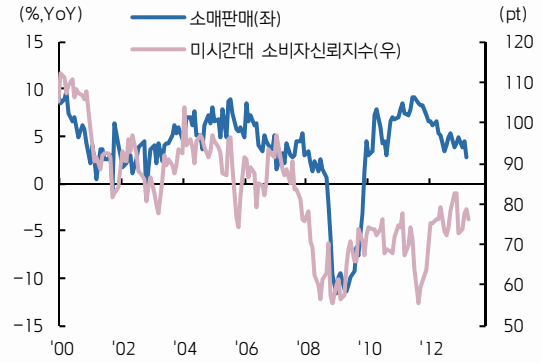
주 '중요도'는 경제지표의 영향력을 표시한 것으로, A는 경제전망에 큰 도움이 되는 핵심 변수를 지칭.

### 국내 실업률(SA)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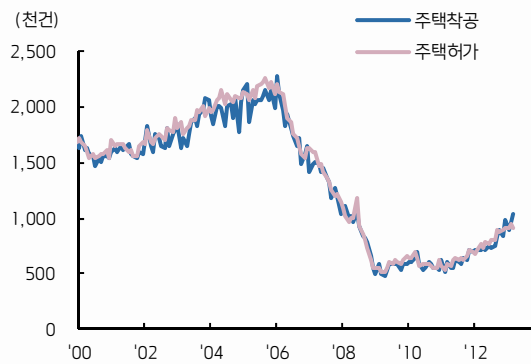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 미국 소매판매(YoY) 및 소비자신뢰지수 추이



자료: U.S. Census Bureau, University of Michigan Survey Research

### 미국 주택착공 및 건축허가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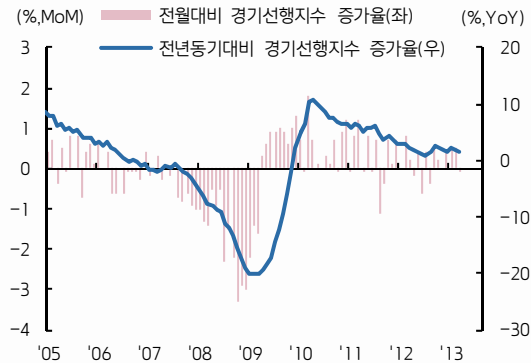
자료: U.S. Census Bureau

### 미국 신규실업수당 신청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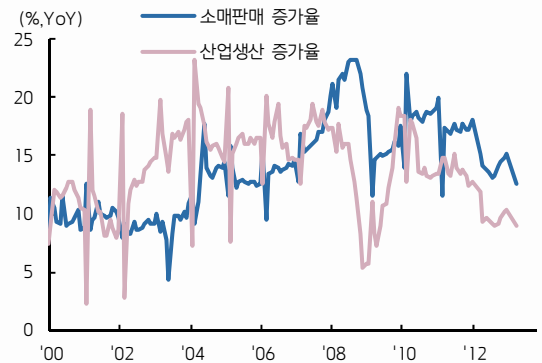
자료: Department of Labor

### 미국 경기선행지수 추이



자료: Conference Board

### 중국 소매판매 및 산업생산 증가율



자료: 중국 통계청

## 4. 외환시장 동향 및 전망: 달러화 강세

### >>> 지난주 동향

#### 달러화, 고용지표 개선 영향으로 상승

지난주 달러지수는 전주대비 1.24% 상승 마감했다. 미국의 4월 고용 호조 및 주간실업수당신청건수 감소 등에 힘입어 달러화 강세가 이어졌다. 지난주 실업보험청구자수가 4천명 줄어든 32만 3천명(계절 조정치)을 나타냈다. 이는 2008년 1월 이후 최저 수준을 보인 것이다. 주중 독일의 3월 산업생산 호조, 중국의 4월 수출 14.7% 증가 등이 달러화의 강세 폭을 제한했지만, 추세를 전환시키지는 못했다. 멕시코, 호주, 폴란드, 한국 등 신흥국의 금리인하가 이어졌다. 특히 주중 엔/달러 환율은 2009년 4월 이후 처음으로 100엔을 상향 돌파했다. 지난 4월 4일 일본은행(BOJ)의 대규모 양적완화 이후 달러화는 7% 가량 급등했다. 일본 기관투자자들이 해외 자산 매입에 나서고 있고, 이는 달러화 강세 요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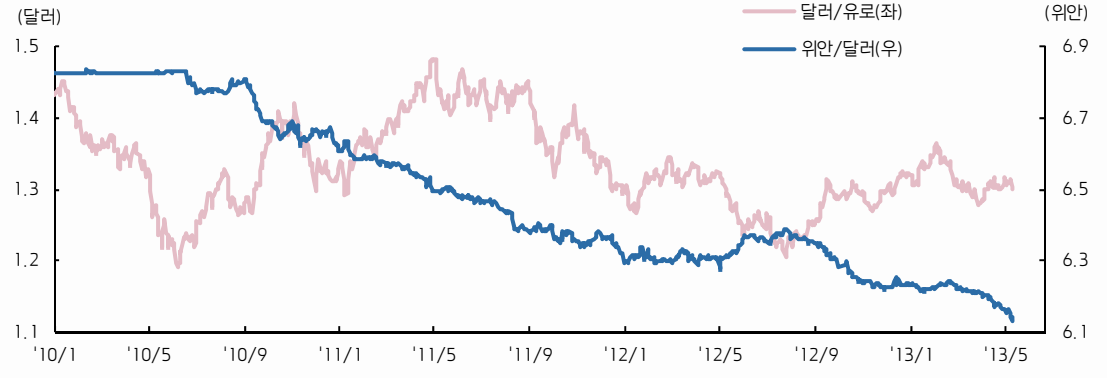
지난주 원/달러 환율은 전주대비 0.84% 하락한 1,106.39원에 마감됐다. 외환당국의 미세조정과 한은의 금리인하, 엔/달러 환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원화가 약세를 시현했다.

#### 아시아 통화지수 및 달러지수



자료: Datastream

#### 유로화 및 위안화



자료: Datastream



## >>> 이번 주 전망

### 원/달러 환율, 1,090~1,115원 중심 등락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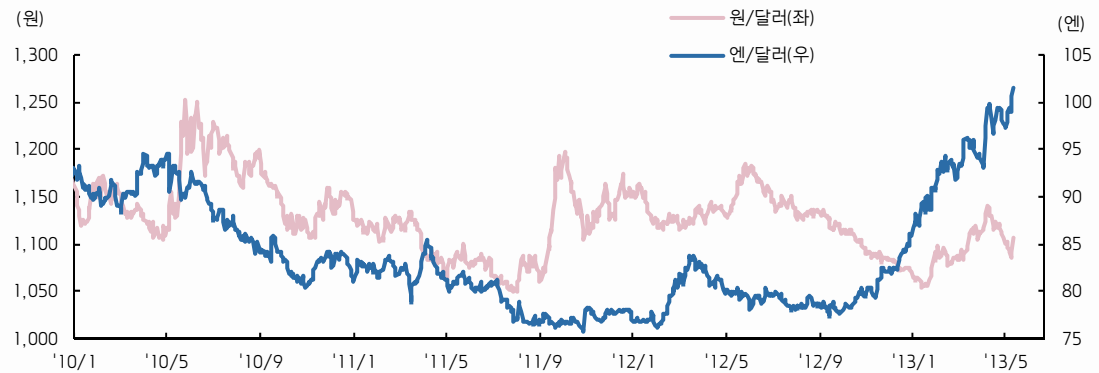
이번 주 원/달러 환율은 1,090~1,115원 중심의 등락이 예상된다. 엔/달러 환율이 100엔을 상회하고 있다. 이는 외환당국이 미세조정을 강화할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또한 주요국의 자국통화 평가절하 정책이 글로벌 달러화 강세를 지지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는 역외선물시장에서 달러화 매수를 촉발시키고 있다. 물론 수출업체의 네고물량 등이 유입되면서 원/달러 환율의 상승 속도를 제한할 것이다. 결국, 이번 주 원/달러 환율은 1,090~1,115원 수준에서의 등락이 예상되며, 좁은 박스권 등락이 예상된다.

### 최근 주요국 통화의 대미 달러환율 변동률

	전주 말 5월 10일	1주 전 대비(%)	4월 말 대비(%)	2012년 말 대비(%)	5월 3일	4월 말	6개월 전	2012년 말
달러/유로	1.2989	-0.95	-1.36	-1.55	1.3114	1.3168	1.2714	1.3193
엔/유로	132.00	1.66	2.87	15.32	129.84	128.32	101.05	114.46
엔/달러	101.62	2.66	4.28	17.14	98.99	97.45	79.49	86.75
위안/달러	6.1417	-0.24	-0.39	-1.43	6.1562	6.1658	6.2430	6.2306
<b>원/달러</b>	<b>1,106.39</b>	<b>0.84</b>	<b>0.46</b>	<b>3.94</b>	<b>1,097.20</b>	<b>1,101.28</b>	<b>1,087.85</b>	<b>1,064.40</b>
원/100엔	1,088.80	-1.76	-3.65	-11.27	1,108.36	1,130.04	1,368.58	1,227.05
대만 달러/달러	29.64	0.36	0.34	2.09	29.53	29.54	29.01	29.03
스위스 프랑/달러	0.9568	2.29	2.96	4.52	0.9354	0.9293	0.9488	0.9154
달러/호주 달러	1.0025	-2.85	-3.34	-3.55	1.0319	1.0371	1.0387	1.0394
<b>달러지수</b>	<b>83.14</b>	<b>1.24</b>	<b>1.71</b>	<b>4.23</b>	<b>82.13</b>	<b>81.75</b>	<b>81.03</b>	<b>79.77</b>

자료: Datastream

### 원/달러 환율 vs 엔/달러 환율



자료: Datastream



## 5. 수급동향: 뱅가드 부담 감소와 글로벌 자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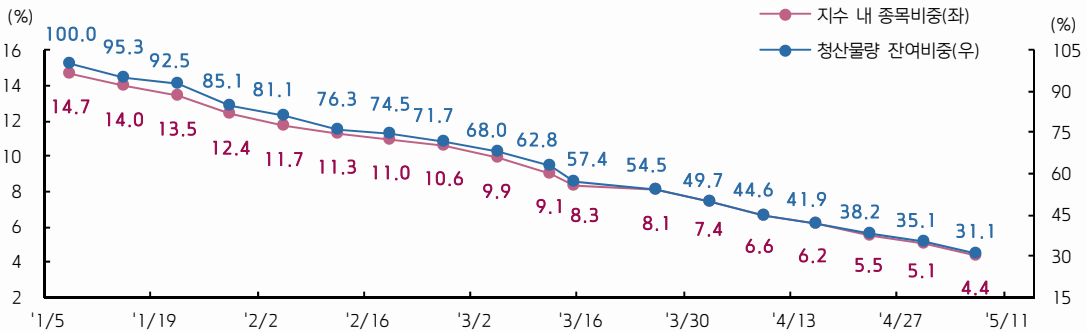
### >>> 뱅가드 청산물량 잔여비중은 30% 수준

FTSE Emerging Transition Index 내 한국 종목 비중은 현재 4.4%이다. 1월 8일 14.7%에서 시작한 것을 감안하면, 30% 수준으로 약 70% 정도의 비중 청산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지수 내에 포함되어 있는 111개 종목에 대한 청산 물량 잔여 비중 역시 31% 정도로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향후 7월 3일 청산 완료 시까지 9주가 남아있어 청산 물량 잔여 비중 기준으로 매주 3.5%씩 청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초기에 4~5%씩 감소했던 것과 비교하면 다소 완화된 수준으로 향후의 수급 부담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금액기준으로 약 3조원의 청산물량이 남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 5월 들어 나타난 이머징으로의 자금유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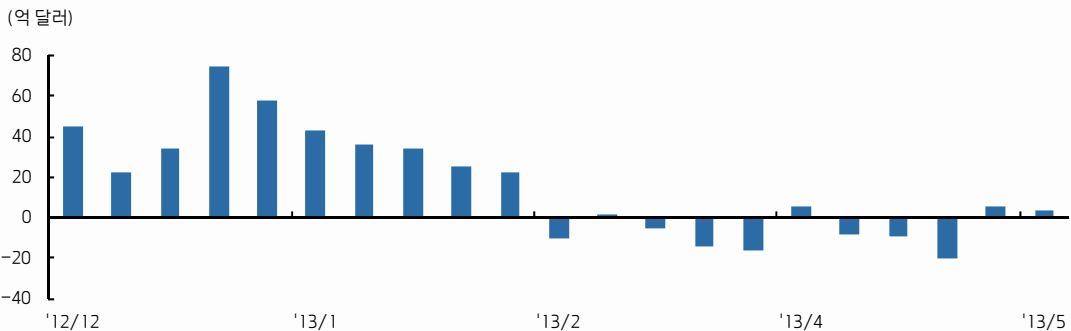
이머징 관련 글로벌 펀드로의 자금유입 흐름이 2주 연속 이어지고 있다. 지역 구분 없는 GEM 펀드로의 자금유입 규모는 직전 주보다 1억 500만 달러 감소했지만, 11억 달러가 순유입되며 2주 연속 자금유입 흐름을 이어갔다. 일본 제외 아시아 펀드는 1억 7천만 달러의 자금이 유출되었지만, 이는 직전 주 4억 2,700만 달러 순유출보다는 감소했다. EMEA 펀드 역시 6천만 달러 순유출을 기록하며 직전 주 보다 유출 규모가 소폭 감소했다. 라틴아메리카 펀드는 직전 주 1억 1,900만 달러 순유출에서 5억 2천만 달러 순유출로 자금유출 규모가 확대되었고, 특히 멕시코 펀드에서의 순유출이 두드러졌다.

FTSE Emerging Transition Index 내 한국비중 추이



자료: FTSE

이머징 관련 글로벌 펀드 자금유출입 추이



자료: Datastream

## 6. Earnings & Valuation: 상대적 매력

### >>> 일드갭은 금융위기 수준을 상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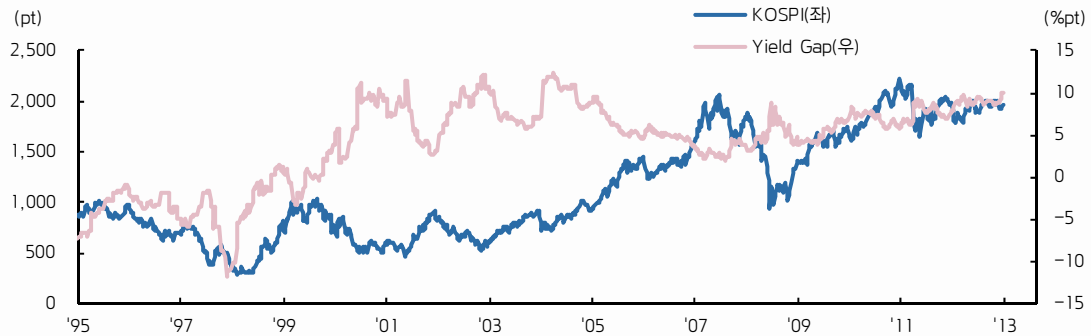
기업실적 전망의 뚜렷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MSCI KOREA 12개월 Fwd EPS는 직전 주 대비 1.13% 상향 조정되었지만, 이는 IT 섹터의 대폭적인 실적전망 상향조정(3.5%)에 기인한 결과였다. 하지만 현재 주식시장은 실적전망의 개선보다는 높아진 밸류에이션 수준에 주목할 시점으로 판단된다. 현재 MSCI KOREA 12개월 Fwd PER은 8.0배 수준이다. 특히 채권시장 대비 주식시장의 상대적 매력은 금융위기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 국고채 3년물 금리가 2.6% 수준까지 하락하면서, 일드 갭은 9.9%pt로 상승한 상황이다.

#### 주요 지역 및 증시 EPS 추정치 변화율

구분	지역 및 국가	12개월 Forward 기준				2013년 실적전망 기준			2014년 실적전망 기준			PER
		1W	1M	3M	6M	1M	3M	6M	1M	3M	6M	
대륙	AC World	1.9	0.7	2.0	1.7	-0.2	8.1	7.2	-0.3	9.5	7.1	13.0
	AC Asia-Pacific	2.3	0.7	4.8	2.1	-0.3	19.2	11.3	0.0	12.2	6.6	13.0
	AC Asia-Pac. Ex. JP	1.8	1.7	3.7	4.0	0.7	10.8	8.8	1.0	11.9	10.0	11.9
	AC Americas	2.0	-0.1	2.7	2.8	-0.9	7.7	7.9	-1.2	10.4	8.6	13.7
	AC Europe	1.4	1.5	-1.1	-0.2	0.5	1.6	3.4	0.6	6.1	5.3	11.6
선진	World	2.1	0.3	2.0	1.7	-0.5	7.5	6.9	-0.7	9.5	7.1	13.5
시장	G7	2.1	0.3	2.3	1.7	-0.6	7.7	6.8	-0.8	9.8	7.0	13.4
신흥	Emerging Market	0.9	1.3	1.6	1.8	0.4	11.1	8.8	0.7	8.9	7.2	10.3
시장	Emerging Market Asia	1.8	2.6	4.4	4.8	1.4	15.4	12.5	2.0	13.2	11.1	10.5
아시아 태평양 (8)	KOREA	1.1	6.5	4.2	4.2	5.5	18.8	13.3	6.1	14.9	11.4	8.0
	JAPAN	1.2	3.1	14.8	20.6	52.5	49.8	42.7	15.4	21.2	23.3	15.2
	CHINA	0.9	1.4	5.6	6.3	0.4	12.2	10.4	0.7	12.9	11.8	9.1
	INDIA	1.5	0.7	3.2	3.9	-1.0	12.7	10.6	-0.4	14.0	12.3	13.5
	TAIWAN	1.3	2.1	5.6	8.8	0.9	25.6	26.5	1.3	13.8	14.0	14.3
	SINGAPORE	1.4	1.0	2.3	0.8	0.5	2.3	1.3	0.2	8.3	5.6	14.4
	HONG KONG	1.0	1.1	5.4	6.8	0.2	11.8	12.1	0.3	12.6	12.0	15.1
	AUSTRALIA	0.4	-0.4	1.9	1.5	-0.3	-0.4	-2.3	-1.3	-1.4	-3.7	14.7
아메리카 (4)	USA	1.8	0.2	3.4	3.6	-0.5	7.5	8.1	-0.9	11.0	9.4	13.9
	CANADA	2.6	-3.3	-0.6	-0.1	-4.3	6.4	6.7	-4.2	7.1	5.5	12.9
	BRAZIL	0.0	-2.1	-0.4	-6.1	-2.9	17.7	6.2	-3.1	6.6	-1.7	10.6
	MEXICO	-1.7	-4.0	-5.4	-4.8	-4.5	4.1	5.1	-5.0	1.6	-0.3	17.7
유럽 (5)	UK	-0.3	-1.7	1.1	1.1	-2.3	4.7	4.1	-2.7	7.5	5.9	11.5
	FRANCE	0.7	-0.3	0.1	-0.8	-1.6	3.2	3.0	-0.8	8.5	5.6	11.6
	GERMANY	0.8	-0.5	1.1	-0.5	-1.5	-7.6	-4.7	-1.5	9.4	6.2	11.1
	ITALY	-0.2	-2.4	-5.3	-10.7	-3.8	-4.0	-7.3	-3.4	4.5	-3.6	10.3
	RUSSIA	-3.9	1.5	-0.8	4.3	1.1	-1.1	2.3	1.5	0.4	6.3	4.7

자료: IBES

#### KOSPI vs Yield Gap



자료: IBES

# 7. 해외 증시 동향

## >>> 지난 주 다우지수, 0.97% 상승

### 글로벌리 경기부양 기대감과 경제지표 개선으로 상승 마감

지난주 미 증시는 상승 마감했다. 글로벌리 경기부양 기대감이 투자심리를 개선하면서 지수 상승 여력으로 작용했다.

주 초반, 드라기 ECB총재는 추가 부양 가능성을 시사했고, 호주도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또한 독일과 프랑스 재무장관이 금융동맹은 신속하게 추진하고 재정정책은 유연하게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유로존의 경기 부양 기대감을 높였다. 주 후반, G7 재무장관회의에 앞서 제이콥 루 재무장관은 앞으로 12개월간 경기회복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해 투자심리 완화를 이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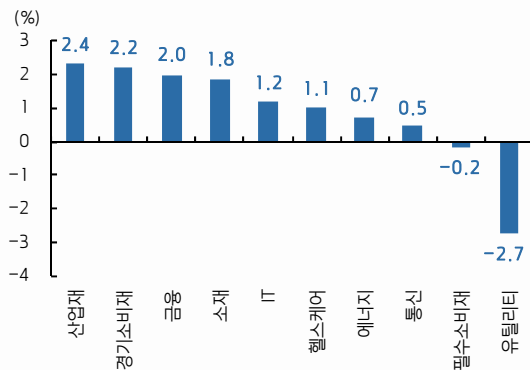
대내외 경제지표 또한 개선되면서 지수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3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며 5년여 만에 최저 수준을 경신했다. 4월 재정수지는 1,129억 달러 흑자를 기록해 5년 만에 최대 수준을 보였다. 한편, 중국의 4월 수출과 수입은 각각 전년대비 14.7%, 16.8% 증가하며 시장예상치를 상회했다. 독일, 영국, 이탈리아 등 유럽 주요국의 3월 산업생산도 개선세를 이어갔다.

## >>> 지난 주 상하이 종합지수, 1.87% 상승

### 무역지표에 힘입어 상승 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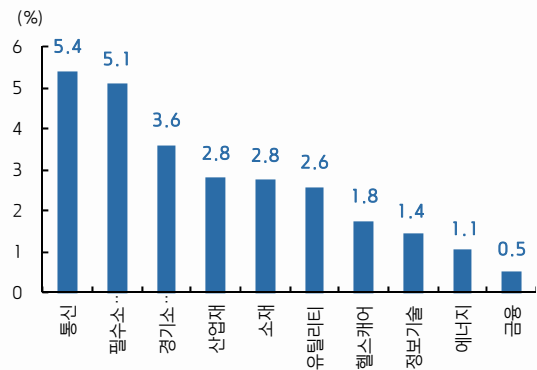
지난주 중국 증시는 상승 마감했다. 주요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하와 4월 무역수지 호조에 힘입어 반등세를 이어갔다. 다만 중국의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예상보다 강해진 것으로 나타나 지수 상승세가 주춤했다. 중국 해관총서는 4월 무역수지가 181억 6,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월의 8억 8,400만달러 적자에서 대폭 개선된 것으로, 시장 예상치 155억 5천만달러 흑자를 대폭 상회했다. 4월 수출은 전년 동기보다 14.7% 증가했고 수입은 16.8%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중국 국가통계국(NBS)은 중국의 지난 4월 CPI가 전년 동기보다 2.4%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컨센서스인 2.2%를 상회했고, 3월에 기록한 2.1%보다도 높은 수치이다.

S&P 500 업종별 주간 등락률



자료: DataStream

심호 300 업종별 주간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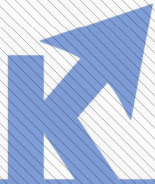
자료: DataStream





ONLINE NO.1 KIWOOM SECURITIES

이 페이지는 편집상 공백입니다



# Chart & Table

## >>> 증시 주요지표

### 거래소 시장

구분		5/6	5/7	5/8	5/9	5/10	
가격 지표	<b>KOSPI</b>	<b>1,961.48</b>	<b>1,954.35</b>	<b>1,956.45</b>	<b>1,979.45</b>	<b>1,944.75</b>	
	등락폭	-4.23	-7.13	+2.1	+23.	-34.7	
	(시가)	1,977.44	1,962.28	1,961.73	1,963.61	1,975.48	
	(고가)	1,983.64	1,962.87	1,964.08	1,982.32	1,975.48	
	(저가)	1,960.14	1,951.27	1,952.38	1,961.50	1,944.75	
	대형주 지수	1,913.95	1,904.24	1,904.78	1,929.81	1,893.89	
	중형주 지수	2,265.21	2,272.20	2,280.81	2,292.40	2,257.92	
	소형주 지수	1,527.19	1,536.49	1,550.33	1,558.32	1,552.26	
	등락종목	상승 (상한가)	448 (11)	439 (2)	495 (6)	523 (6)	254 (3)
		하락 (하한가)	358 (1)	370 (1)	317 (1)	293 (1)	564 (2)
	이동평균	(5일)	1,957.81	1,960.54	1,959.04	1,963.49	1,959.30
		(20일)	1,934.39	1,936.17	1,937.96	1,940.15	1,939.90
		(60일)	1,969.61	1,969.99	1,970.08	1,970.64	1,970.12
		(120일)	1,963.19	1,963.61	1,964.07	1,964.82	1,965.24
이격도	(5일)	100.19	99.68	99.87	100.81	99.26	
	(20일)	101.40	100.94	100.95	102.03	100.25	
투자심리	(%)	50	40	50	50	40	
거래량 지표	시가총액 (십억원)	1,136,835	1,132,129	1,133,523	1,147,201	1,127,404	
	거래량 (천주)	294,945	299,864	337,936	332,552	283,839	
	이동평균 (5일)	325,259	332,022	318,994	315,566	309,827	
	이동평균 (20일)	335,092	334,418	333,483	334,103	328,966	
	거래대금 (십억원)	3,941	3,652	4,151	5,053	4,270	
매매 주체별 순매수	개인 (억원)	1,005	1,546	1,827	-3,218	4,145	
	외국인 (억원)	-591	-2,514	-2,681	1,417	-1,598	
	기관 (억원)	-272	1,074	1,264	1,825	-2,561	
	일반법인 (억원)	-144	-118	-416	-10	4	
	프로그램매매 (억원)	882	377	-177	4,551	-2,809	

자료: 증권선물거래소, 키움증권

### 코스닥 시장

구분		5/6	5/7	5/8	5/9	5/10	
가격 지표	<b>KOSDAQ</b>	<b>567.13</b>	<b>573.68</b>	<b>576.70</b>	<b>573.35</b>	<b>569.70</b>	
	등락폭	+1.80	+6.55	+3.02	-3.35	-3.65	
	(시가)	568.82	569.69	576.60	579.00	574.51	
	(고가)	569.05	573.76	577.50	579.33	574.51	
	(저가)	567.12	568.73	575.30	572.82	569.44	
	등락종목	상승 (상한가)	487 (7)	568 (8)	569 (8)	430 (9)	331 (12)
		하락 (하한가)	418 (1)	328 (0)	330 (0)	481 (0)	584 (2)
	이동평균	(5일)	565.03	566.10	568.66	571.24	572.11
		(20일)	553.13	555.37	557.80	559.72	560.99
		(60일)	542.69	543.89	545.09	546.25	547.28
		(120일)	521.26	521.71	522.17	522.67	523.22
	이격도	(5일)	100.37	101.34	101.41	100.37	99.58
		(20일)	102.53	103.30	103.39	102.43	101.55
	투자심리	(%)	70	70	70	60	60
거래량 지표	시가총액 (십억원)	127,248	128,761	129,568	128,847	128,131	
	거래량 (천주)	462,952	475,869	466,321	470,604	445,328	
	이동평균 (5일)	468,957	475,706	467,831	471,127	464,215	
	이동평균 (20일)	458,395	459,211	457,823	461,558	461,799	
	거래대금 (십억원)	2,085	2,321	2,398	2,473	2,339	
매매 주체별 순매수	개인 (억원)	173	-726	-68	806	554	
	외국인 (억원)	273	393	116	-236	-101	
	기관 (억원)	-218	417	90	-464	-309	
	일반법인 (억원)	-241	-80	-147	-112	-156	

자료: 증권선물거래소, 키움증권



## >>> 증시 자금동향

### 역내 펀드 자금유출입

	12년 말	주간증감	5/6	5/7	5/8	5/9
고객예탁금	180,143		189,238	180,684	182,136	186,143
(증감)		<b>+2,585</b>	<b>+5,679</b>	<b>-8,554</b>	<b>+1,452</b>	<b>+4,008</b>
신용융자 (거래소)	22,029		24,875	24,947	25,160	25,404
(증감)		<b>+778</b>	<b>+249</b>	<b>+71</b>	<b>+213</b>	<b>+245</b>
신용융자 (코스닥)	17,095		21,343	21,438	21,493	21,667
(증감)		<b>+415</b>	<b>+92</b>	<b>+94</b>	<b>+55</b>	<b>+174</b>
미수금	1,241		1,760	1,433	1,622	1,410
(증감)		<b>-63</b>	<b>+287</b>	<b>-327</b>	<b>+189</b>	<b>-212</b>
국내 주식형 수익증권	737,330		749,654	748,401	747,919	747,717
(증감)		<b>-2,590</b>	<b>-653</b>	<b>-1,253</b>	<b>-482</b>	<b>-203</b>
국내 공모 주식형 수익증권(Index펀드 포함)	654,863		659,587	658,544	657,691	657,384
(증감)		<b>-2,747</b>	<b>-543</b>	<b>-1,043</b>	<b>-853</b>	<b>-308</b>
국내 공모 주식형 수익증권(Active)	496,600		475,045	474,625	474,127	473,787
(증감)		<b>-1,942</b>	<b>-684</b>	<b>-421</b>	<b>-498</b>	<b>-340</b>
국내 사모 주식형 수익증권	82,467		90,067	89,857	90,228	90,333
(증감)		<b>+156</b>	<b>-110</b>	<b>-210</b>	<b>+371</b>	<b>+105</b>
해외 주식형 수익증권	283,050		272,095	271,686	271,493	271,099
(증감)		<b>-1,276</b>	<b>-280</b>	<b>-409</b>	<b>-193</b>	<b>-393</b>
주식혼합형 수익증권	100,435		97,139	97,056	96,995	97,124
(증감)		<b>+57</b>	<b>+72</b>	<b>-83</b>	<b>-61</b>	<b>+129</b>
해외 주식혼합형 수익증권	26,233		30,231	30,249	30,430	30,599
(증감)		<b>+440</b>	<b>+73</b>	<b>+18</b>	<b>+181</b>	<b>+168</b>
채권혼합형 수익증권	192,042		222,787	223,179	223,506	223,830
(증감)		<b>+1,978</b>	<b>+935</b>	<b>+392</b>	<b>+327</b>	<b>+324</b>
채권형 수익증권	468,680		551,086	555,945	554,615	550,973
(증감)		<b>+381</b>	<b>+494</b>	<b>+4,859</b>	<b>-1,330</b>	<b>-3,642</b>
MMF	636,706		656,678	662,126	657,824	661,672
(증감)		<b>+13,064</b>	<b>+8,070</b>	<b>+5,448</b>	<b>-4,302</b>	<b>+3,848</b>

자료: 자산운용협회, 제로인, 키움증권

## >>> 외국인/기관 주간 순매수/순매도 상위 종목

### 외국인 (KOSPI) (단위: 억원)

순위	순매수		순매도	
	종목명	거래대금	종목명	거래대금
1	현대모비스	227	삼성전자	2,268
2	아모레퍼시픽	212	현대차	826
3	삼성엔지니어링	207	LG전자	730
4	KB금융	203	이마트	672
5	제일모직	195	기아차	642
6	고려아연	194	NHN	431
7	LG유플러스	193	롯데쇼핑	377
8	SK	169	SK텔레콤	355
9	LG디스플레이	158	에이블씨엔씨	316
10	효성	150	KT	312

자료: 증권선물거래소, 키움증권

### 기관 (KOSPI) (단위: 억원)

순위	순매수		순매도	
	종목명	거래대금	종목명	거래대금
1	현대건설	521	한국전력	1,101
2	하나금융지주	521	KODEX 레버리지	1,028
3	대림산업	496	삼성전자	614
4	이마트	494	LG디스플레이	460
5	LG화학	430	LG전자	364
6	동아에스티	411	KODEX 200	263
7	SK텔레콤	373	기아차	250
8	신한지주	338	엔씨소프트	229
9	SK이노베이션	337	LS	226
10	KT	326	에이블씨엔씨	193

자료: 증권선물거래소, 키움증권

### 외국인 (KOSDAQ) (단위: 억원)

순위	순매수		순매도	
	종목명	거래대금	종목명	거래대금
1	파트론	186	셀트리온	317
2	다음	105	동서	60
3	컴투스	105	메디톡스	48
4	GS홈쇼핑	74	메가스터디	45
5	CJ오쇼핑	57	제닉	34
6	세코닉스	55	젠크스	29
7	파라다이스	50	서원인텍	28
8	성광밴드	50	JCE	22
9	매일유업	48	비에이치	21
10	서울반도체	48	루멘스	20

자료: 증권선물거래소, 키움증권

### 기관 (KOSDAQ) (단위: 억원)

순위	순매수		순매도	
	종목명	거래대금	종목명	거래대금
1	코나아이	100	다음	105
2	게임빌	94	레고켈바이오	98
3	서울반도체	92	네패스	92
4	오스템임플란트	88	매일유업	80
5	인터플렉스	76	제이콘텐트리	65
6	잉크테크	67	이엘케이	62
7	대한약품	51	옵트론텍	54
8	모두투어	47	세코닉스	52
9	바이로메드	45	컴투스	52
10	조이맥스	45	KG이니시스	50

자료: 증권선물거래소, 키움증권

## >>> Technical Approach

전고점 돌파종목 (단위: 원)

KOSPI	전일 종가	KOSDAQ	전일 종가
현대산업	26,250	KT뮤직	4,190
조선내화	85,400	서울제약	16,200
LG유플러스	12,100	리드코프	7,000
세방전지	60,000	삼천당제약	5,230
동아타이어	18,800	KH바텍	24,650
		바이오니아	22,950
		솔리드	6,350
		리홈큐텐	4,635
		웨이브일렉트로	19,400
		나노엔텍	5,700

주: 전일 종가가 3개월 이내 최고종가인 종목 중 주가등락율 상위 종목

이격 확대종목 (단위: %)

KOSPI	이격도	KOSDAQ	이격도
에이블씨엔씨	79	셀트리온	83
락앤락	83	로엔	87
빙그레	91	에스엠	87
모토닉	91	와이지엔터테인먼트	88
STX	91	메디톡스	89
하이트진로	92	에스에이엔티	90
한올바이오파마	92	경동제약	90
일진디스플레이	92	셀트리온제약	90
CJ제일제당	93	안랩	91
롯데쇼핑	93	테라젠이텍스	91

주: 20일 이격도 기준 이격확대(이격도 98% 이하) 상위 종목

Stochastic Slow 신호 발생종목 (단위: %)

KOSPI	Slow %K	KOSDAQ	Slow %K
BS금융지주	28	코미팜	24
		SM C&C	24
		와이지엔터테인먼트	22

주: Slow %K가 20% 선을 상향 돌파하는 종목

외국인 지분율 확대종목 (단위: %)

KOSPI	외국인 지분율	KOSDAQ	외국인 지분율
없음		슈프리마	16.41
		세코닉스	11.86
		이노칩	10.62
		한국사이버결제	10.46

주: 20 거래일 대비 외국인 지분율 3% 이상 확대 종목

상한가 종목 (단위: 원)

KOSPI	전일 종가	KOSDAQ	전일 종가
없음		서울제약	16,200

주: 최근 10일 중 첫 상한가 기록 종목

단기 골든크로스 발생종목 (단위: 원)

KOSPI	전일 종가	KOSDAQ	전일 종가
금호종금	899	KT뮤직	4,190
한신공영	9,600	엑토스소프트	56,900
한국유리	19,050	루미마이크로	3,395
서울가스	116,500	게임빌	107,500
모나리자	3,630		
KB금융	36,150		
하나투어	75,000		
한화케미칼	17,300		
S-Oil	87,700		
삼성물산	60,000		

주: 5일 이평선이 20일 이평선을 돌파한 종목 중 주가등락율 상위 종목

거래 급증종목 (단위: %)

KOSPI	거래증가률	KOSDAQ	거래증가률
현대산업	119.10	티에스이	467.42
		리드코프	450.76
		루미마이크로	343.60
		서울제약	285.23
		삼천당제약	265.41
		KH바텍	225.83
		바이오니아	198.93
		솔리드	172.02
		디오	171.55
		웨이브일렉트로	161.92

주: 전일 3% 이상 주가 상승 종목 중 20일 평균대비 50% 이상 거래증가 종목

기관 매수세 유입 종목 (단위: %)

KOSPI	주가 등락율	KOSDAQ	주가 등락율
CJ	1.09	KH바텍	8.59
KT	1.04	솔리드	7.63
한미약품	0.58	리홈큐텐	5.58
CJ대한통운	0.47	이수앤지스	2.87
금호석유	0.00	조이맥스	2.66
SK텔레콤	0.00	SK브로드밴드	2.51
BS금융지주	0.00	코나아이	1.91
LG생명과학	-0.19	빅솔론	1.59
두산	-0.38	이오테크닉스	1.55
삼성생명	-0.47	테크윙	1.25

주: 최근 10일 중 7일 이상 기관 순매수 유입 종목 중 등락율 상위 종목

## >>> 아시아 증시 외국인 및 Global Fund Flow 동향

외국인, 지난 주 전반적 매수 우위 (단위: Mil \$, %, pt)

	대표지수 동향		외국인 순매수 금액				
	5월 10일	등락률	5월 3일	1주	1개월	3개월	6개월 누적
한국	1,944.75	-1.8	-5.9	-505.3	-1,589.0	-3,307.0	-2,566.2
대만	8,280.26	0.0	156.9	1,534.5	2,469.7	2,941.9	6,541.0
인도	20,122.32	0.7	196.7	908.9	2,274.8	8,642.9	18,990.4
태국	1,622.48	0.1	-40.2	8.3	-677.7	-1,053.4	317.0
필리핀	7,262.38	0.9	50.3	106.3	293.0	630.4	1,950.7
인도네시아	5,105.94	0.3		-160.6	760.5	1,546.9	2,374.0
일본	14,607.54	2.9	-	-264.7	24,307.3	54,390.0	87,620.7

자료: Thomson Reuters, 키움증권 주: 외국인 순매수 금액 일본 1주 지연 데이터

### 한국 증시(KOSPI) vs 외국인 누적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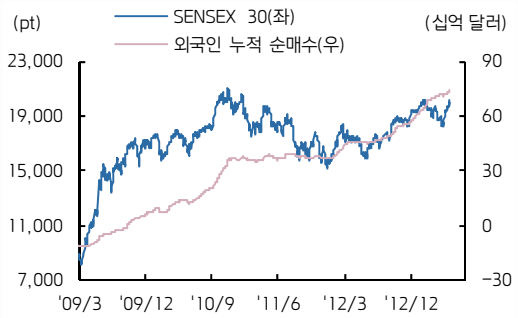
자료: Datastream, 키움증권

### 대만 증시(TWSE) vs 외국인 누적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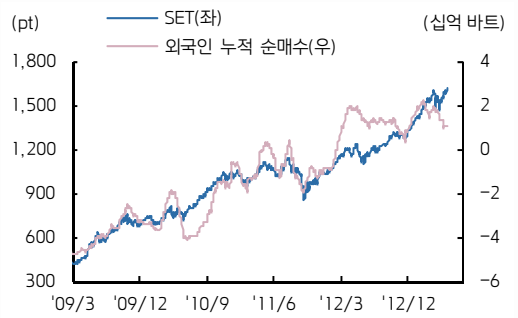
자료: Datastream, 키움증권

### 인도 증시(SENSEX) vs 외국인 누적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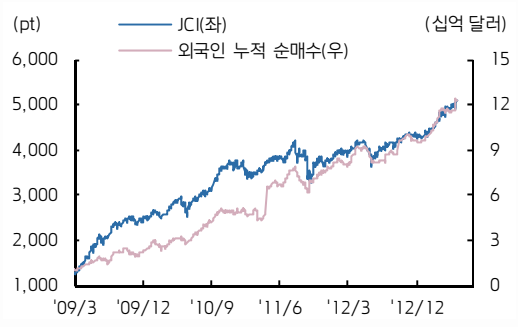
자료: Datastream, 키움증권

### 태국 증시(SET) vs 외국인 누적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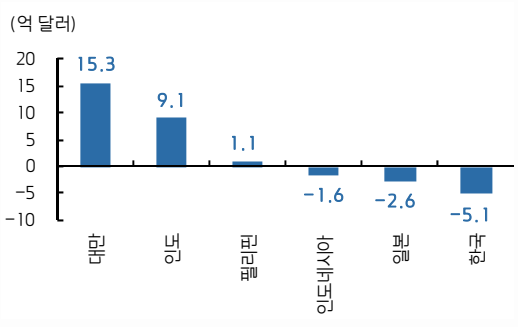
자료: Datastream, 키움증권

### 인도네시아(JCI) vs 외국인 순매수



자료: Datastream, 키움증권

### 지난주 아시아 증시 외국인 매매 동향



자료: Datastream, 키움증권



## >>> MSCI 주요 지역별 실적전망 변화

세계 주요업종 실적전망 변화 (단위: %, 배)

	12개월 Forward EPS 변화율				2013년 EPS 변화율			Revision Ratio				PER
	1W	1M	3M	6M	1M	3M	6M	1W	1M	3M	6M	
에너지, 산업재, IT, 금융, 경기소비재 업종 상향조정	<b>1.9</b>	<b>0.7</b>	<b>2.0</b>	<b>1.7</b>	<b>-0.2</b>	<b>8.1</b>	<b>7.2</b>	<b>-7.7</b>	<b>-3.8</b>	<b>-9.4</b>	<b>-22.8</b>	<b>13.0</b>
에너지	2.9	0.4	0.4	-0.7	-0.2	3.0	2.1	-24.7	-21.2	-36.0	-26.0	10.2
소재	1.9	-4.1	-3.4	-5.8	-5.4	8.4	3.6	-40.5	-18.2	-30.4	-36.1	12.1
산업재	2.8	0.4	2.3	0.3	-0.8	8.7	4.5	-15.1	-3.7	-4.2	-38.9	13.5
경기소비재	2.1	3.1	4.4	4.7	1.8	12.0	11.8	-0.7	-1.3	-1.9	-19.5	14.3
필수소비재	0.8	0.7	1.9	3.2	0.0	8.2	8.0	-5.6	-6.7	-4.1	-13.8	17.2
의료	0.4	0.7	1.3	0.8	-0.1	0.7	3.5	-5.1	-9.5	2.9	-5.3	15.0
금융	2.5	1.6	3.9	4.8	0.8	12.3	11.4	14.5	8.5	0.6	-11.4	11.5
IT	2.7	0.1	2.9	2.0	-0.7	9.2	8.8	6.8	9.2	-9.2	-34.3	12.7
통신서비스	1.0	4.2	15.1	35.6	3.2	11.2	25.2	-38.4	-36.0	-28.7	-19.8	13.5
유틸리티	0.0	2.9	4.1	7.2	0.0	6.0	12.2	-14.2	2.2	-12.7	-12.6	15.1

한국 주요업종 실적전망 변화 (단위: %, 배)

	12개월 Forward EPS 변화율				2013년 EPS 변화율			Revision Ratio				PER
	1W	1M	3M	6M	1M	3M	6M	1W	1M	3M	6M	
유틸리티, IT, 의료, 산업재 업종 상향조정	<b>1.1</b>	<b>6.5</b>	<b>4.2</b>	<b>4.2</b>	<b>5.5</b>	<b>18.8</b>	<b>13.3</b>	<b>-29.3</b>	<b>-37.5</b>	<b>-44.6</b>	<b>-23.1</b>	<b>8.0</b>
에너지	-3.5	-5.8	-6.9	-10.0	-7.1	24.3	11.5	-100.0	0.0	-100.0	-33.3	8.1
소재	-3.0	-8.9	-12.1	-23.4	-10.9	-1.6	-14.9	-66.7	-11.1	-66.7	-50.0	10.5
산업재	2.2	0.6	-0.8	-25.5	-3.0	5.4	-22.1	-9.5	-57.9	-55.6	-25.0	10.8
경기소비재	0.1	21.7	4.1	1.1	18.6	8.2	5.5	-41.7	-27.3	-30.8	-9.1	6.3
필수소비재	1.0	-9.5	-9.9	-6.9	-0.8	4.0	0.2	-16.7	-80.0	-40.0	-16.7	15.8
의료	3.0	3.8	6.4	-4.5	1.1	31.8	14.4	100.0	-50.0	0.0	0.0	15.0
금융	-2.4	-4.0	-4.9	-10.3	-5.5	-11.7	-16.1	-61.1	-73.7	-60.0	-70.0	8.6
IT	3.4	8.6	16.5	27.2	7.5	44.0	46.6	14.3	12.5	-62.5	62.5	7.4
통신서비스	1.1	0.5	9.6	14.2	0.2	41.3	49.1	0.0	66.7	-33.3	66.7	9.5
유틸리티	4.7	2.9	39.2	147.5	-1.5	-217.6	-257.3	-100.0	100.0	50.0	50.0	10.0

미국 주요업종 실적전망 변화 (단위: %, 배)

	12개월 Forward EPS 변화율				2013년 EPS 변화율			Revision Ratio				PER
	1W	1M	3M	6M	1M	3M	6M	1W	1M	3M	6M	
소재, 에너지, 산업재, 금융, IT, 경기소비재 업종 상향조정	<b>1.8</b>	<b>0.2</b>	<b>3.4</b>	<b>3.6</b>	<b>-0.5</b>	<b>7.5</b>	<b>8.1</b>	<b>3.5</b>	<b>2.3</b>	<b>-8.2</b>	<b>-18.6</b>	<b>13.9</b>
에너지	3.7	0.6	3.5	2.8	0.2	4.5	5.2	-5.5	0.0	-40.0	-40.7	11.7
소재	4.0	-1.9	1.2	1.5	-3.8	13.5	13.5	-23.5	-23.5	-32.4	-42.9	13.5
산업재	3.0	0.3	4.0	5.4	-0.5	8.4	9.4	-19.2	2.7	9.7	-42.7	13.7
경기소비재	2.0	0.9	4.4	5.6	-0.5	7.9	9.4	18.2	-4.0	-16.0	4.1	16.7
필수소비재	-0.6	-0.2	3.0	5.8	-1.0	9.3	10.3	32.6	10.9	17.4	4.3	16.7
의료	-0.4	0.6	2.6	2.0	-0.3	0.4	5.1	-16.7	-20.0	5.0	-3.4	14.7
금융	2.9	1.5	6.1	8.2	1.2	18.9	16.1	23.1	20.2	1.9	-5.8	12.3
IT	2.3	-1.4	1.0	-1.8	-2.1	1.7	1.3	-3.6	3.6	-10.7	-48.8	12.8
통신서비스	-0.6	1.8	4.9	5.3	-0.3	24.3	18.4	-20.0	-20.0	-60.0	0.0	19.1
유틸리티	1.7	1.1	2.8	3.5	0.6	1.6	3.9	11.8	26.5	-14.7	3.0	16.6

중국 주요업종 실적전망 변화 (단위: %, 배)

	12개월 Forward EPS 변화율				2013년 EPS 변화율			Revision Ratio				PER
	1W	1M	3M	6M	1M	3M	6M	1W	1M	3M	6M	
IT, 경기소비재, 금융, 유틸리티, 필수소비재, 산업재 업종 상향조정	<b>0.9</b>	<b>1.4</b>	<b>5.6</b>	<b>6.3</b>	<b>0.4</b>	<b>12.2</b>	<b>10.4</b>	<b>-14.5</b>	<b>-15.2</b>	<b>-17.9</b>	<b>-17.0</b>	<b>9.1</b>
에너지	-1.0	-0.7	0.0	-1.5	-1.1	4.1	2.9	-44.4	-44.4	-77.8	33.3	8.8
소재	-1.9	-3.2	1.6	2.1	-4.9	32.7	24.4	-73.7	15.8	-47.4	-14.3	9.3
산업재	1.0	-0.6	1.7	0.2	-2.3	15.1	9.6	-32.0	-44.0	-33.3	-42.9	10.5
경기소비재	2.1	2.5	4.2	3.3	1.2	22.0	14.9	-23.5	-29.4	-5.9	-26.3	11.9
필수소비재	1.2	1.5	-0.2	-2.7	0.1	11.6	4.9	-36.4	-100.0	-54.5	0.0	23.0
금융	1.7	2.6	8.5	10.1	1.6	11.9	10.5	41.7	8.3	18.2	-12.5	7.0
IT	2.2	2.2	8.2	11.4	-0.2	34.5	26.8	-20.0	-40.0	60.0	-60.0	18.8
통신서비스	0.2	0.3	0.4	0.8	0.6	4.7	4.7	0.0	-50.0	50.0	25.0	11.4
유틸리티	1.7	3.0	13.2	18.5	1.6	29.3	30.7	25.0	100.0	0.0	12.5	13.6

자료: IBES(2013. 05. 09 기준), 키움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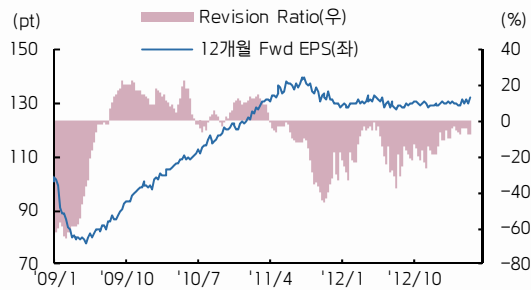
주: Revision Ratio, PER은 12개월 Forward EPS 기준

Revision Ratio = [(12개월 Forward EPS 상향조정 기업 수 - 하향조정 기업 수) / 총 기업 수]

중국 의료 업종은 Data가 없는 관계로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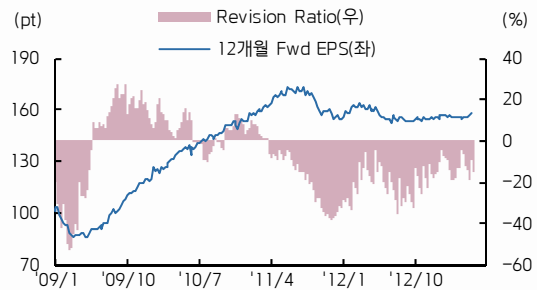
## >>> MSCI 주요 지역별 12M Fwd EPS & Revision Ratio 추이

### AC WOR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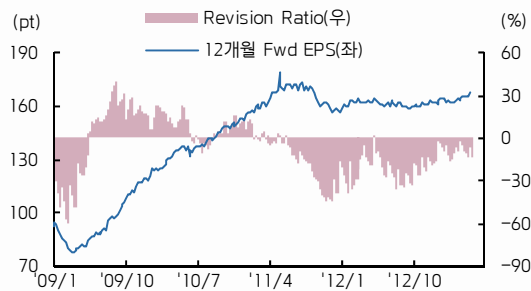
자료: IBES, 키움증권

### EMERGING MARK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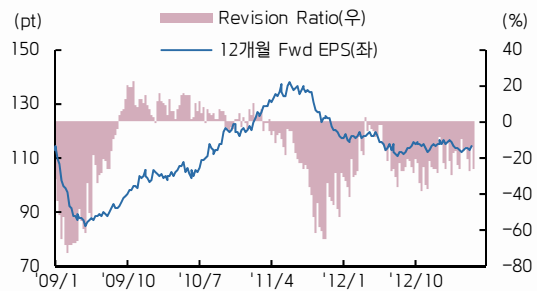
자료: IBES, 키움증권

### ASIA-PAC. EX J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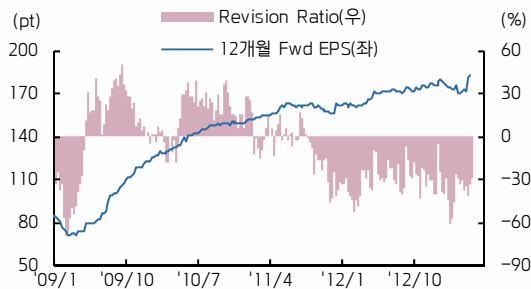
자료: IBES, 키움증권

### EURO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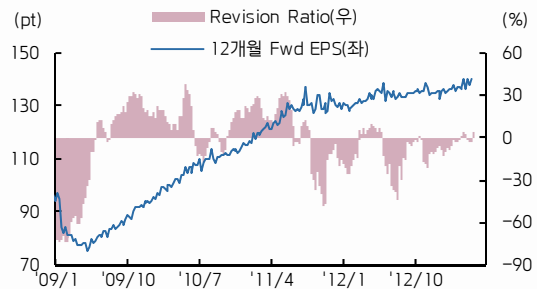
자료: IBES, 키움증권

###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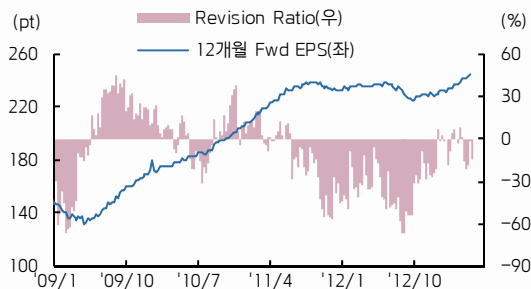
자료: IBES, 키움증권

### US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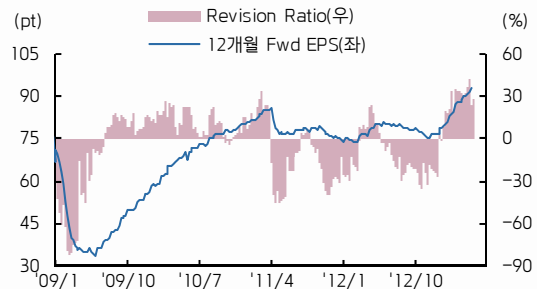
자료: IBES, 키움증권

### CHINA



자료: IBES, 키움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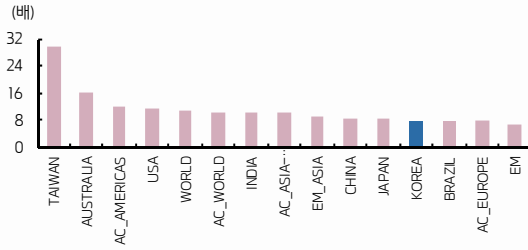
### JAP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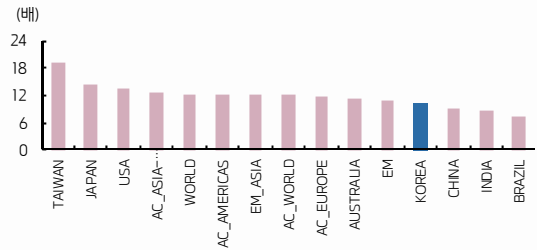
자료: IBES, 키움증권

## >>> MSCI 주요 지역 업종별 P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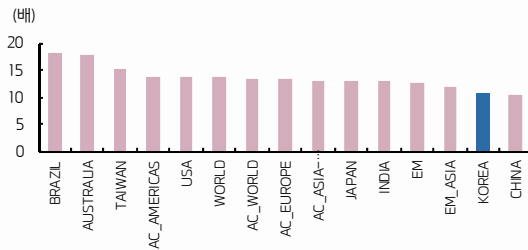
### 에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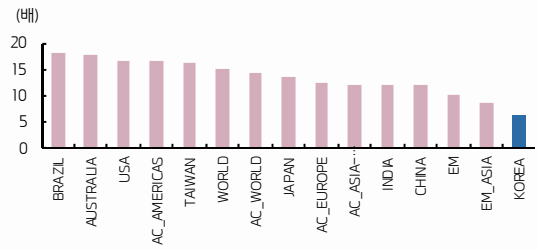
### 소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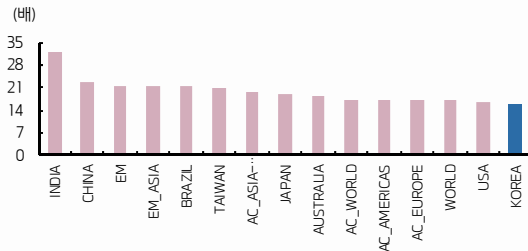
### 산업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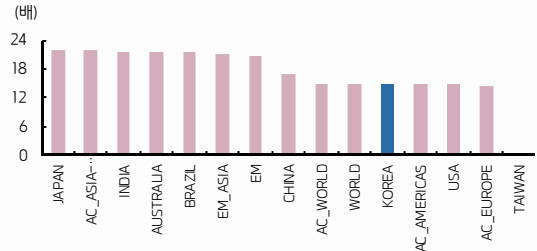
### 경기소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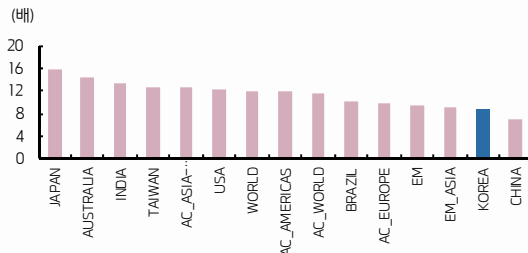
### 필수소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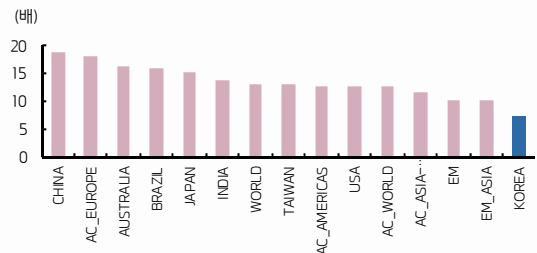
### 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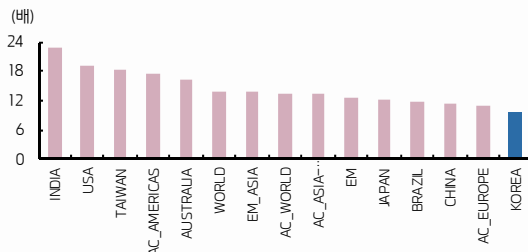
### 금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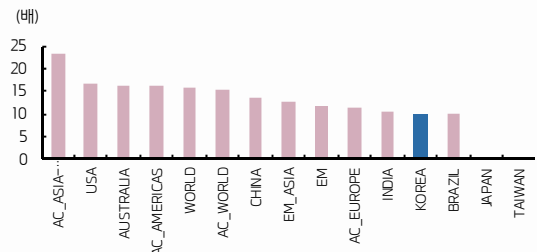
### IT



### 통신서비스



### 유틸리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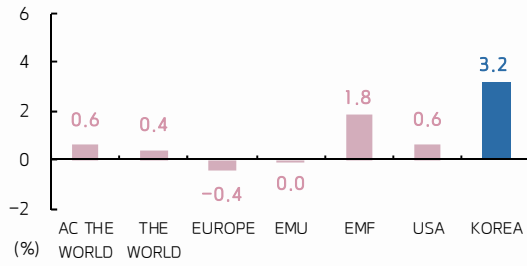


자료: IBES (2013. 05. 09 기준), 키움증권  
 주 Taiwan 의료/유틸리티 업종 집계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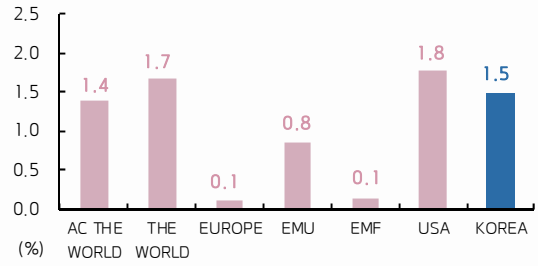


## >>> MSCI 주요 지역 업종별 지수 주간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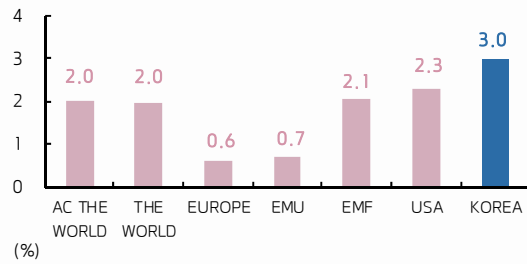
### 에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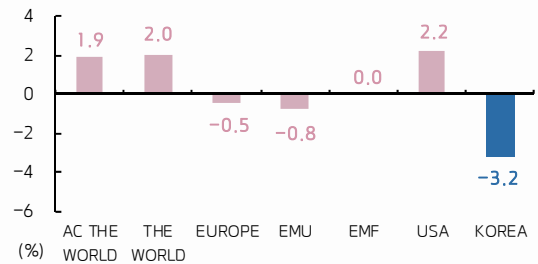
### 소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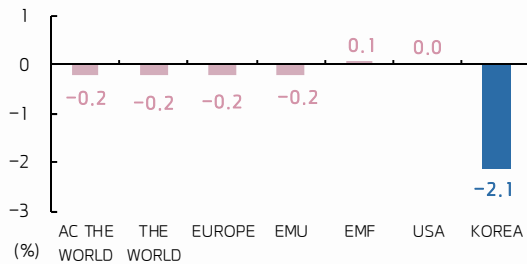
### 산업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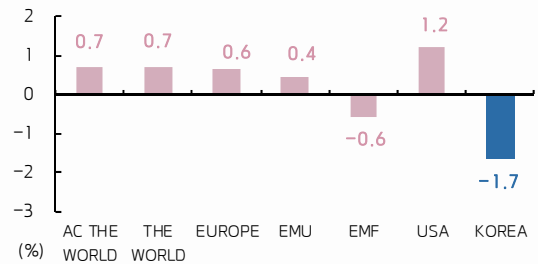
### 경기소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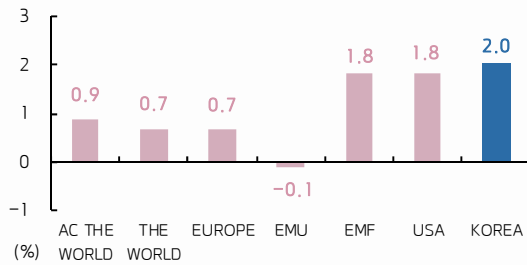
### 필수소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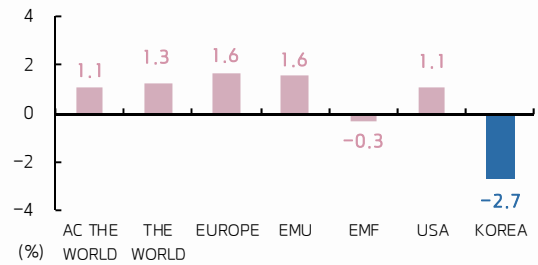
### 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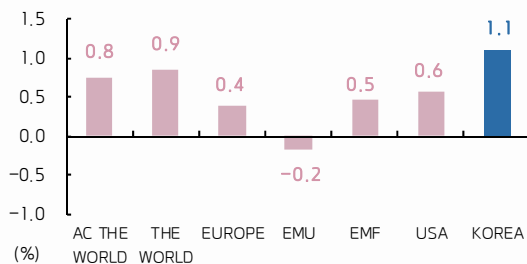
### 금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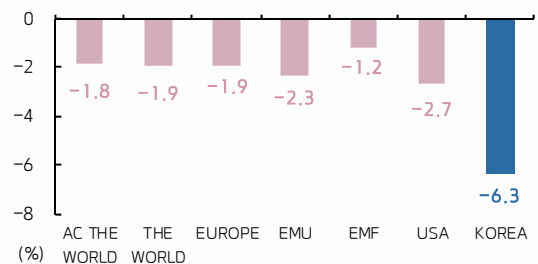
### IT



### 통신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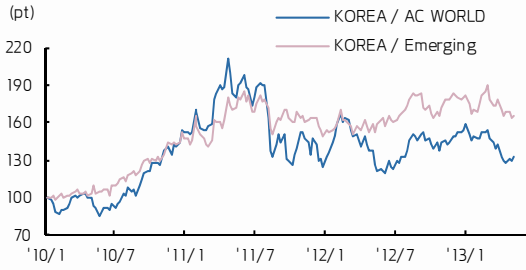


### 유틸리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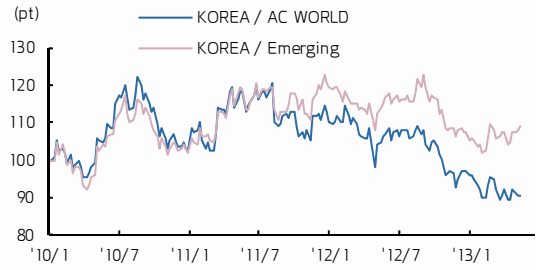


## >>> MSCI KOREA 주요 시장대비 상대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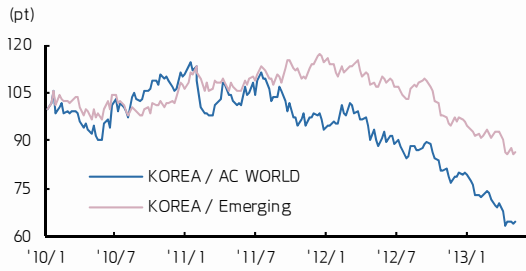
### 에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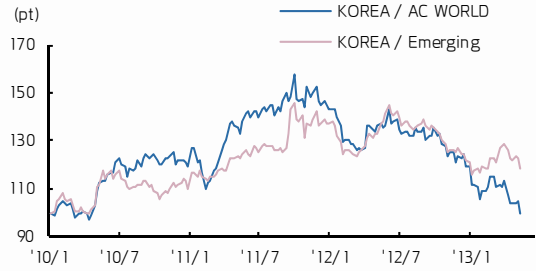
### 소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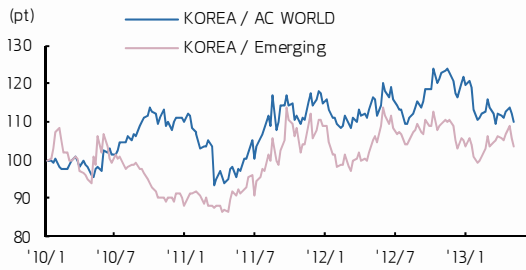
### 산업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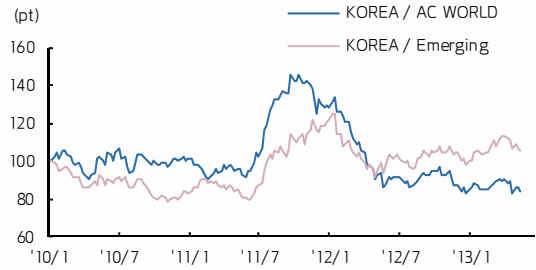
### 경기소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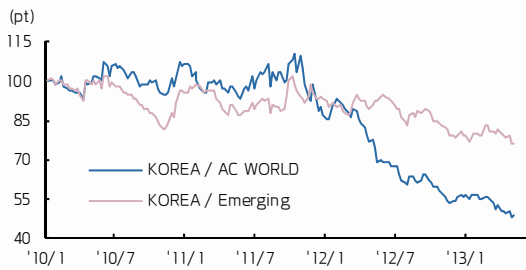
### 필수소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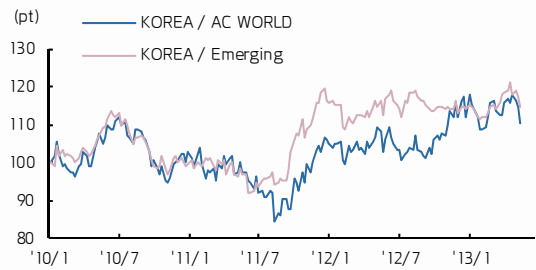
### 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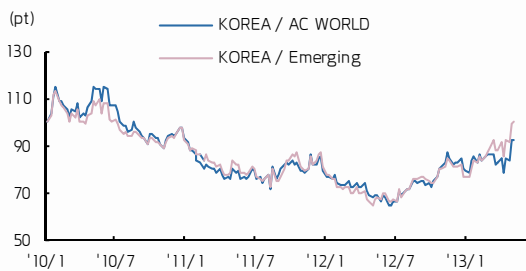
### 금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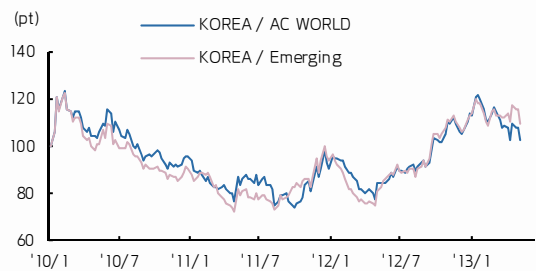
### IT



### 통신서비스



### 유틸리티



## >>> 해외 주요지수 · 종목 동향

주요국 지수	증가	D-1	D-5	D-20	주요 상품가격	증가	D-1	D-5	D-20
Dow	15,118.49	+0.24%	+0.97%	+1.70%	금(COMEX)	1,436.60	-2.18%	-1.88%	-4.29%
NASDAQ	3,436.58	+0.80%	+1.72%	+4.30%	천연가스(NYMEX)	3.91	-1.83%	-3.24%	-7.39%
S&P 500	1,633.70	+0.43%	+1.19%	+2.82%	알루미늄(LME,3M)	1,875.00	-1.16%	+2.07%	-0.79%
Semiconductor	465.94	+0.89%	+3.33%	+7.45%	전기동(LME,3M)	7,377.00	+0.56%	+6.91%	-2.23%
NYSE	9,442.76	+0.36%	+1.10%	+2.77%	아연(LME,3M)	1,868.50	-0.72%	+0.73%	-1.11%
NASDAQ 100	2,981.02	+0.67%	+1.24%	+4.36%	WTI(현물)	96.04	-0.36%	+0.45%	+5.20%
S&P 100	732.85	+0.33%	+0.99%	+2.44%	옥수수	687.75	-0.97%	-1.68%	+4.44%
S&P mid 400	1,189.93	+0.61%	+2.13%	+3.54%	설탕(NYBOT/ICE)	17.43	-0.23%	-0.57%	-3.33%
S&P small 600	548.58	+0.94%	+2.49%	+4.17%					
Russell 2000	975.16	+0.92%	+2.17%	+3.43%	<b>한국 DR 및 환율</b>				
영국	6,624.98	+0.49%	+2.54%	+3.25%	KB금융지주(ADR)	32.70	-1.21%	+2.16%	+3.28%
독일	8,278.59	+0.19%	+1.92%	+5.17%	신한지주(ADR)	34.11	-2.43%	+0.47%	-1.07%
프랑스	3,953.83	+0.64%	+1.04%	+4.72%	LG디스플레이(ADR)	13.21	-2.00%	-2.58%	-5.17%
일본	14,607.54	+2.93%	+5.86%	+10.73%	POSCO(ADR)	72.80	-1.48%	+0.36%	+4.09%
대만	8,280.26	-0.07%	+0.08%	+5.37%	SK텔레콤(ADR)	21.61	0.00%	+2.22%	+26.74%
홍콩항셍	23,321.22	+0.47%	+2.78%	+5.52%	한국전력(ADR)	13.42	-1.54%	-8.71%	+2.36%
홍콩 H	11,347.41	+0.71%	+4.62%	+5.97%	KT(ADR)	17.52	+0.40%	+0.23%	+17.43%
상하이종합	2,246.83	+0.62%	+1.87%	+0.95%	우리금융지주(ADR)	31.40	-1.45%	+4.39%	+2.05%
상하이A	2,351.61	+0.62%	+1.88%	+0.95%	삼성전자(GDR)	664.00	-4.12%	-4.67%	-1.78%
선전A	1,013.04	+0.38%	+3.72%	+4.83%	삼성전자 우 (GDR)	398.50	-2.11%	-0.13%	+0.50%
태국	1,622.48	+0.08%	+2.09%	+8.93%	현대차 우 (GDR)	35.23	-4.37%	-0.48%	+7.57%
싱가폴	3,443.77	+0.32%	+2.19%	+4.08%	LG전자(GDR)	11.77	0.00%	-1.92%	+5.94%
인도네시아	5,105.94	+0.33%	+2.24%	+3.69%	롯데쇼핑(GDR)	16.85	-7.42%	-7.42%	-4.26%
러시아	1,429.78	-1.54%	+3.05%	-1.65%	STX팬오션(SGD)	3.94	-2.72%	-3.19%	-24.52%
인도	20,122.32	+0.20%	+2.28%	+9.27%	원/달러	1,106.10	+1.38%	+0.81%	-2.06%
멕시코	41,741.54	+0.14%	-2.02%	-6.01%	엔/달러	101.62	+1.02%	+2.66%	+3.30%
브라질	55,107.80	-0.61%	-0.69%	-0.53%	달러/유로	1.2989	-0.41%	-0.95%	-0.95%
한국	1,944.75	-1.75%	-1.07%	-0.26%	위안화/달러	6.1417	+0.18%	-0.24%	-0.88%

### 다우지수 구성종목

3M	110.48	+0.51%	+2.46%	+2.60%
Alcoa	8.70	-1.02%	+0.93%	+5.84%
Altria Group	36.35	+0.91%	+0.47%	+2.14%
American Express	70.08	-0.19%	-0.21%	+6.70%
AIG	44.07	+0.25%	-0.76%	+10.09%
AT&T	37.36	+0.08%	+0.05%	-3.19%
Boeing	94.24	-0.39%	+0.53%	+6.02%
Caterpillar	88.62	-1.48%	+1.89%	+4.20%
Citigroup	48.75	+0.31%	+3.79%	+8.87%
Coca Cola	42.15	+0.07%	-0.21%	+2.60%
Du Pont	55.46	+0.14%	+2.82%	+11.32%
Exxon Mobil	90.14	-0.98%	+0.13%	+1.29%
General Electric	22.90	+0.53%	+1.46%	-2.39%
General Motors	31.42	-0.73%	-2.12%	+6.08%
Hewlett Packard	21.54	+1.70%	+4.41%	+3.06%
Home Depot	76.01	+0.18%	+2.77%	+3.25%
Honeywell	44.18	+0.25%	-0.76%	+10.09%
IBM	204.47	+0.61%	-0.02%	-3.27%
Intel	24.50	+0.57%	+2.25%	+13.01%
J&J	85.76	+0.72%	+0.01%	+3.65%
JPMorgan	48.96	-0.16%	+2.92%	-0.10%
McDonald's	100.20	+0.51%	-2.64%	-3.27%
Merck	45.95	+1.01%	+0.61%	-2.46%
Microsoft	32.69	+0.09%	-2.39%	+13.39%
Pfizer	28.72	+0.42%	-0.83%	-6.36%
P&G	78.76	+0.70%	+0.73%	-1.65%
United Tech	95.25	+0.52%	+2.30%	-0.46%
Verizon	52.89	+0.34%	+0.40%	+3.99%
Wal Mart	78.89	+0.62%	-0.45%	+0.42%
Walt Disney	67.20	+0.79%	+3.70%	+10.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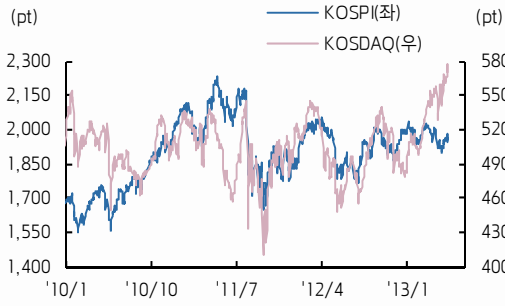
### 필라델피아반도체 구성종목 및 주요 기술주

AMD	3.95	+2.33%	+9.72%	+59.27%
Altera	33.05	+0.12%	+0.98%	-0.75%
Applied Materials	14.97	+0.34%	+0.94%	+9.83%
Broadcom	36.62	+0.30%	+1.55%	+8.12%
Cree	61.62	+2.26%	+6.00%	+13.66%
Intel	24.50	+0.57%	+2.25%	+13.01%
KLA-Tencor	54.47	+0.50%	+0.31%	+1.30%
LAM research	46.92	-0.66%	+1.98%	+12.22%
Linear Tech	38.38	+0.68%	+2.87%	+4.61%
Marvell Tech	10.93	+1.20%	+2.05%	+4.69%
MEMC	5.41	+7.13%	-0.18%	+13.66%
Micron Tech	10.82	+1.02%	+12.36%	+8.09%
National Semi	43.74	+3.28%	+18.70%	+21.80%
Novellus System	40.39	-0.47%	-6.16%	-10.44%
Sandisk	57.23	+1.02%	+6.22%	-0.83%
Stmicroelectron	9.32	+1.64%	+6.64%	+19.18%
Taiwan Semi	20.17	-0.20%	+3.92%	+16.52%
Teradyne	16.97	+1.98%	+3.54%	+9.70%
Texas Instrument	29.11	-0.78%	-1.32%	-3.64%
Xilinx	38.56	+0.21%	+1.05%	+3.99%
Apple	452.97	-0.83%	+0.66%	+5.39%
Ebay	55.65	+0.87%	+2.66%	-2.90%
Cisco	21.10	+1.30%	+1.30%	-2.04%
Dell	13.45	+0.98%	+1.05%	-4.54%
Research In Motion	15.54	+0.97%	-0.58%	+13.93%
Google	880.23	+1.00%	+4.08%	+11.41%
Nokia	3.66	+3.10%	+10.91%	+4.87%
Oracle	34.02	+0.95%	+1.92%	+1.67%
Qualcomm	64.64	+0.83%	+1.36%	-3.06%
Yahoo	26.83	+2.25%	+7.02%	+8.67%

자료: Datastream, 키움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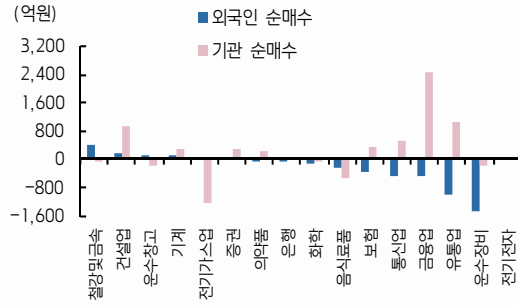


### KOSPI vs KOSDAQ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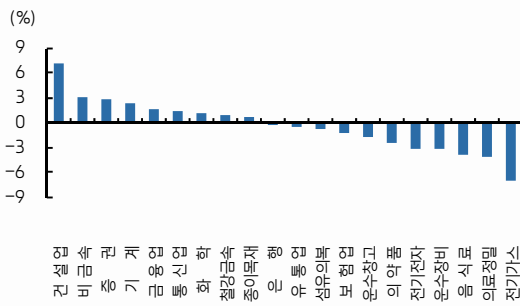
자료: 증권선물거래소, 카움증권

### 업종별 주간 기관 vs 외국인 순매수



자료: 증권선물거래소, 카움증권

### 업종별 주간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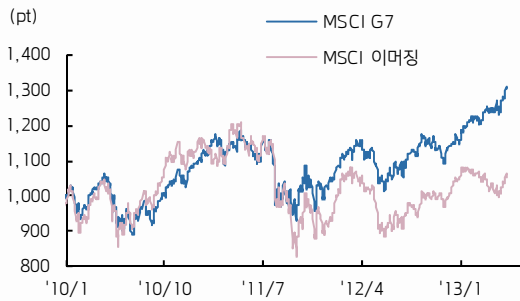
자료: 증권선물거래소, 카움증권

### 매수차익잔고 vs 매도차익잔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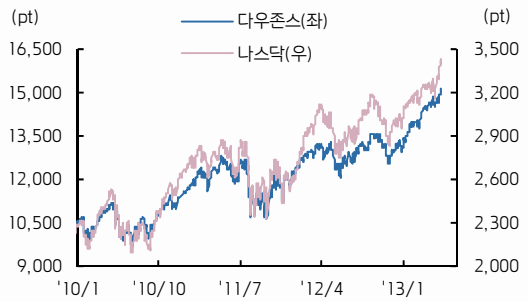
자료: 증권선물거래소, 카움증권

### MSCI G7 vs MSCI 이머징



자료: Datastream, 카움증권

### 다우존스 vs 나스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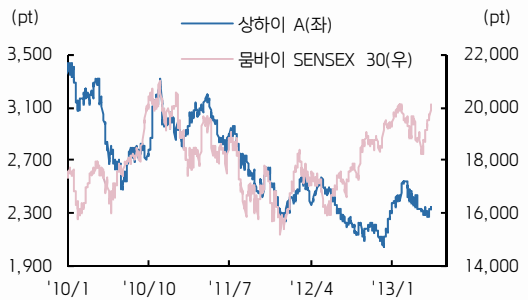
자료: Datastream, 카움증권

### 닛케이 225 vs 대만 가권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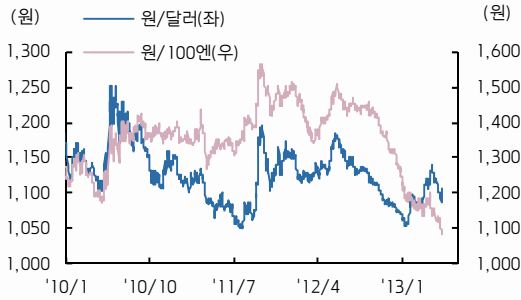
자료: Datastream, 카움증권

### 상하이 A vs Mumbai SENSEX 30



자료: Datastream, 카움증권

원/달러 vs 원/100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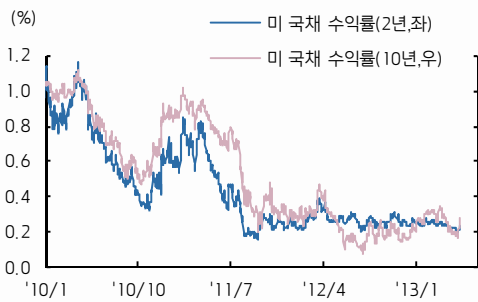
자료: CEIC, 키움증권

엔/달러 vs 달러/유로



자료: CEIC, 키움증권

미 국채 수익률 2년 vs 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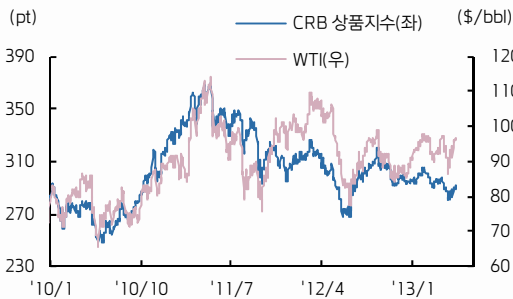
자료: CEIC, 키움증권

국고채 수익률 3년 및 회사채 AA- 수익률 3년



자료: CEIC, 키움증권

CRB 상품지수 vs WTI 현물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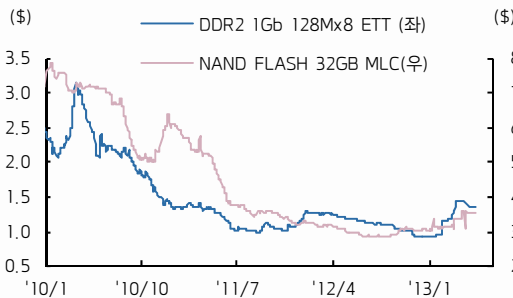
자료: Datastream, 키움증권

국제 금가격 vs 달러 인덱스



자료: Datastream, 키움증권

DRAM2 1GB vs NAND FLASH 32GB MLC



자료: Datastream, 키움증권

LME 전기동 3M vs LME 아연 3M



자료: Datastream, 키움증권